

고규홍의 '나무생각'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아름답다

입춘이 며칠 지났다는 걸 의식했기 때 문일까. 도시의 아파트 울타리를 둘러선 개나리 가지 위에 돋아난 꽃눈이 눈에 들어왔다. 겨울에도 따스한 별이 며칠 이어 질라치면 노란 꽃을 피우는 철부지 나무 이긴만, 꽃 한 송이 제대로 피우지 못하고 지낸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모양이다. 다가오는 봄의 발걸음을 분명하게 알아 채고, 비로소 본격적으로 봄을 준비하는 중이다.

몇 걸음 떨어져 서 있는 산수유의 안 부도 궁급했다. 발뭍발뭍 산수유 앞으로 다가섰다. 산수유 나뭇가지에도 갈색 꽃 봉오리가 송알송알 솟아올랐다. 바람 차 가워도 나무들에는 봄 마중 준비가 뚜렷 하게 드러난다. 산수유 꽃봉오리 한 알 쟁이의 지름은 고작해야 8밀리미터 정도밖에 안 된다. 가능한 나뭇가지와 빛 깔마저 비스듬히 엇간해서는 눈에 띄지 않는다. 마음먹고 찾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꽃봉오리다.

식물 공부 가운데에 눈에 띄지 않는 걸 찾아봐야 하는 학습 과정이 있다. '겨울눈 관찰'이 그것이다. 꽃도 열매도 잎도 없는 겨울에 움튼 꽃눈이나 잎눈을 관찰하면

서 나무의 종류를 구별하는 과정인데, 초 심자는 물론이고, 식물 전공자에게도 결코 쉽지 않은 공부에 속한다. 오로지 활짝 피어날 준비를 하는 중인 눈의 상태만으로, 앞으로 벌어질 모양을 판단해야 하는 어려운 학습 과정이다.

대개의 눈이라는 게 고작해야 밀리미터 단위의 작은 크기일 뿐 아니라, 그 모양도 비스듬해서 얼핏 봐서는 그 정체를 가늠할 수 없다. 겨울눈을 효과적으로 관찰하려면 우선 작은 눈의 겹질에 털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본다. 또 무늬와 선각처럼 눈에 보이는 부분을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 또 오랜 식물 관찰 경험과 식물 지식을 동원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눈의 속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인내와 혜안이 필요하다.

아직은 데면데면한 산수유 꽃봉오리를 한참 바라보면서, 작은 꽃봉오리 안쪽을 상상해 본다. 지금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심지어 미세한 털립조차 드러나지 않지만, 산수유 꽃봉오리는 이 땅의 봄을 재우치며 개화의 고통 혹은 해산의 통증으로 꿈틀거린다. 입춘 즈음이면 언

제나 되풀이되는 산수유의 생명이 과정이다.

산수유 꽃봉오리는 이제부터 느리지만 뚜렷하게 봄이 오는 과정을 보여 줄 것이다. 매운바람 지나가고 바람결에 불별 스미기 시작하면 작은 알갱이의 겹질은 우선 냇으로 쪼개질 것이다. 처음에야 그저 가는 틈만 생긴다. 며칠 더 따스한 열 내려오면 네 갈래의 틈이 벌어지고 급기야 하늘 향해 솟은 꽃봉오리 알갱이의 안쪽에서 노란빛이 얼비칠 것이다. 꽃송이는 하나가 아니다. 8밀리미터밖에 안 되는 작디작은 구슬 모양의 꽃봉오리 겹질 안쪽에는 작게는 스무 송이에서 많은 경우가 모여 마흔 송이의 꽃송이가 웅기 쫘기 모여 법석을 벌인다. 봄 햇살 맞으려는 생명 본능의 간간함이다. 다시 며칠 뒤에는 갈색의 딱딱한 겹질이 화들짝 젖혀지면서 샛노란 꽃송이가 일제히 튀어나온다.

이런 봄 환희의 빛으로 피어나는 산수유 꽃송이는 물론 멀리서 바라보아도 더 없이 찬란한 꽃잎에 틀림없다. 우리의 봄이 이토록 아름답다는 걸 단박에 느끼게 해 주는 아름다운 꽃이다. 그러나 산수유

꽃송이에 한걸음 더 다가서면 봄의 환희는 한층 깊어진다. 한데 모여 피어난 마흔 송이의 꽃송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꽃송이마다 3밀리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꽃잎이 넉 장씩 들어 있다. 꽃잎 안쪽에는 네 개의 수술이 모여 있고, 가운데에는 하나의 암술이 빼죽이 돌아난다. 모두 똑같다. 작지만 엄밀한 생명의 규칙이 담겨 있다. 앙증맞은 꽃송이가 보여 주는 생명의 규칙이어서 더 신비롭다.

오래전 생택쥐페리의 '어린 왕자'는 울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살을 에는 바람에 자꾸만 얼굴을 옷깃에 파묻게 되는 입춘 즈음, 거리의 사람들에게 나무가 가만가만 말을 건넌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야."

사람의 마음에 찬란한 봄이 오려면 아직은 더 많은 찬 바람을 스쳐 보아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미 이 땅의 나무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이 봄을 부지런히 준비하는 중이다.

다가오는 봄을 더 찬란하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매운바람에 맞서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인내와 혜안이 필요하

기고

사람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동구



김성한
광주 동구청장

되하는 공동화 현상을 맞게 된다. 그러나 총장로와 금남로, 무등산 국립공원 등 광주를 대표하는 관광 자원과 남도의 문화 예술, 맛깔스런 남도 음식의 명맥을 잇는 광주의 본고장답게 동구는 여전히 도심 관광의 중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남도청이 빠져나간 자리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서며 문화 융성을 통한 국가 발전을 꾀하는 문화 발전소로도 서서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동구에서는 사람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도시를 목표로 도시 재생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도시 개발, 재개발과 같은 물리적인 정비는 도시기능 정상화는 물론 인구 유입으로 생산과 소비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과정이 아닐 수 없다. 동구는 월남·내남·용산지구에 이어 최근 선교지구 사업자를 선정하며 도시 개발 사업의 마지막 숙원을 풀었다.

도시 개발의 성공은 낡고 노후한 불량 주택을 헐어내고 새로운 주택을 짓는 재개발 사업을 촉진하는 시너지 효과를 내

고 있다. 심수년 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고도 감감무소식이던 동구의 재개발이 간지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임주를 마친 학3구역 재개발이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은 이후 동구 관내 15개 구역 중 4개 구역이 착공, 5개 구역이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등을 얻고 착공 시기를 조율 중이다. 공동 주택 공급을 통한 인구유입에 대한 기대는 대규모 민간 투자로도 이어지고 있다. 총장로와 금남로, 대의동 일원에는 15층 규모의 주상 복합 건물, 호텔 10여 곳 이상이 준공을 마쳤거나 공사를 진행 중이다. 또 동명동 '카페거리'에는 200여 곳이 넘는 카페와 공방, 음식점들이 자리 잡아 저마디의 개성을 뽐내며 젊은이들의 핫 플레이스로 각광을 받고 있다.

문화전당 주변 활성화와 문화 관광을 위한 불거리, 즐길 거리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광주 최초의 먹거리 특화시장인 남광주 밤기차 야시장이 성황리에 열리고 있는 가운데 구시정 일원에는 올해부터 아시아 음식 전문점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해 큰 호

응을 얻었던 '문화재야행 달빛결음', '지산유원지 토요일악회', '미술관 오디세이'에 이어 올해는 한국 서양 화단의 거목 오지호 화백 생가 일원에서 '생생문화재 사업'이 펼쳐진다. 구도심의 역사 문화 유산을 활용해 푸른길~문화전당 간 연계 테마거리, 전남여고와 동명동 학원가, 푸른길공원을 잇는 '청소년 안심·문화거리', 오가현 일대 식당 골목의 '남도음식 문화거리' 등도 조성될 예정이다.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형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푸른마을 공동체센터, 공동예술두레마당, 총장미디어산업센터 등 원도심 재활성화 핵심거점 3곳도 조만간 선보인다. 향후 민간 거버넌스 소통의 구심이 되고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이 솟아나는 원천이 될 것이다.

국가의 경제, 도시의 경제가 희망해지면서 각 도시들마다 역사성, 문화성 등을 부각시켜 고유한 정체성을 도시 경쟁력으로 승화시키려는 노력들로 분주하다. 사람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도시, 그것이 바로 동구가 꿈꾸는 아름다운 미래이자 추구하고자 하는 도시 모델이다.

의료칼럼

임신 중 눈 건강 관리



박진우
보라안과병원 원장

화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이는 각막의 일시적인 형태 변화로 인한 눈의 전반적인 굴절력이 임신에 따른 일시적인 변화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시력이 저하되어 안경을 새로 맞추어야 한다면, 안경 없이 지내던 사람이 안경을 끼우야 보이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임신으로 인한 눈의 변화는 출산 후 다시 원상태로 회복될 수 있으므로 시력의 변동이 심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관찰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임신 중에는 각막의 생리적인 변화로 인해 감염에 취약해지므로 콘택트렌즈로 인한 부작용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된다. 되도록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하게 사용하더라도 사용상의 주의점을 반드시 지켜 위생적인 착용과 되도록 착용 시간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라식이나 라섹 등의 근시 교정술도 임신이나 수유기간 중 굴절률의 변화로 근시 교정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므로 출산 후 6개월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임신 중에는 당뇨병 및 당뇨망막병증이 악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

신을 하게 되면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는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고, 혈액 순환의 이상으로 망막 혈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당뇨병에 의한 합병증인 당뇨망막병증이 유발되거나, 기존의 당뇨망막병증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 당뇨망막병증은 망막에 비정상 혈관들이 자라나 시력을 왜곡시켜 최악의 경우 실명에까지 이르는 무서운 병이다. 때문에 이미 당뇨병 진단을 받은 여성이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안과 검진을 받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임신 첫 3개월 내에는 망막 전문 병원을 찾아 망막 검사를 받아야 하며, 꾸준히 혈당을 조절하면서 당뇨망막병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시력 손상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다.

임신부의 경우 녹내장 약물이 태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녹내장 치료 시 주의가 필요하다. 녹내장 약물 중 탄산 탈수 효소억제제의 경우, 태아의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임신 중이거나 임신을 계획 중인 가입이 여성 녹내장 환자의 경우, 안과 병원을 찾아 임신과 관련된 주의 사항을 전문의와 미리 상의하는 것이 권장된다.

일반적으로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 전보다 안압이 내려가기 때문에 안압이 높지 않고, 녹내장의 진행이 심하지 않다면 출산과 수유 기간 동안에는 녹내장 약물 치료를 잠정적으로 중단해볼 수 있으며, 또 레이저 치료로 임신 기간 동안 안압을 낮추는 방법도 시도해 볼 수 있다.

물론 일반적으로 안약은 복용하는 약은 아니므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사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의사는 안약의 사용 여부도 치료 가능한 경우 또는 되도록 안약 사용을 권유하지 않는다. 다만 눈의 치명적인 질환으로 인해 임신부의 시력을 위협할 경우 안약의 사용으로 인한 잠재적인 이익이 태아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경우에는 투여할 수 있다.

여성의 모체는 임신 중 격렬한 변화를 겪게 된다. 눈도 마찬가지다. 임신 중에는 치료가 있어 여러 제약이 많으므로 예방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따라서 임신부는 의회 후 손을 잘 씻고 눈거품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눈의 이상이 의심되면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한 안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다.

社說

38년 만에 공식 확인된 계엄군의 헬기 사격

5·18 민주화운동 기간에 시민들을 향한 군의 헬기 사격이 수차례 있었고 폭탄을 장착한 전투기 대기 등 육·해·공 3군이 합동으로 진압 작전에 나섰다 는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동안의 흑 수순에 머물렀던 신군부의 잔학무도한 살상 행위가 정부 조사 결과 처음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5개월간의 조사 끝에 어제 발표한 보고서는 계엄군의 진압 작전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야만적으로 이뤄졌는지를 보여 준다. 특조위는 육군이 광주에 출동한 40여 대의 헬기 중 공격 헬기 500MD와 기동 헬기 UH-1H를 이용해 1980년 5월 21일과 27일 시민 상대로 여러 차례 사격한 사실을 확인했다. 코브라 헬기의 발진포 위협사격이 있었다는 증언도 확보했다.

5월 21일 자위권 발동이 이뤄지기 전엔 광주에 무장 헬기가 투입되지 않았다는 계엄군의 주장이 거짓이었음을

입증하는 작전 지점과 증언들도 공개됐다. 하지만 헬기 사격을 명확히 입증해 줄 운영일지와 전투기에 폭탄을 장착한 것이 광주를 폭격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근거 자료를 찾는 데는 실패했다고 한다. 계엄군의 전투상보 등이 무단 왜곡되거나 폐기된 탓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미연의 과제로 남을 뻔했던 5·18 의혹들에 대한 실제 규명에 한 발짝 더 다가갔다는 점에서 미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일부 의혹은 진실을 명백히 규명하지 못해 한계를 노출했고, 최종 발표 명령지가 누구인지도 드러내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럼에도 이번 조사 결과 5·18 진상 규명 특별법을 서둘러 제정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법 통과에 조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조위에 이어 독립적이고 강제적인 권한을 가진 기관이 추가 조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공공기관마저 장애인 차별한다니

흔히 장애인은 두 번 운다고 한다. 시 각·청각 장애 또는 지체부자유 장애와 같은 신체 장애인이나 정신 장애인 모두 장애에 따른 불편을 우선 감내해야 한다. 여기에 장애인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장애 그 자체가 아니라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장애인 정책 모니터팀 센터가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 17개 광역시·도 자치법규 장애인 차별 조례 현황(지난해 6월 기준)을 보면 광주·전남은 물론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차별적인 장애인 정책의 현주소가 여실히 드러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 일부 자치단체와 산하 공공기관들마저 장애인을 차별하는 조례를 여전히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 장애인의 복지·문화시설 임차와 이용을 제한하거나 공무원 채용 시 불이익을 주는 조례가 있었고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곳도 많았다.

화순군은 '오지호 기념관 설치 및 관

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신이 박약한 자는 기념관에 입장할 수 없도록 했으며, 여주시·장흥군·영광군도 각각 '문화의 집'과 군립도서관 등에서 정신 질환자의 이용을 제한했다.

완도군은 정신질환자의 군의회 방청을 금지했으며, 영광군도 공무원 인사 규칙에 의사 발표 정확성과 논리성을 평가 기준에 포함했다. 광주시와 동구·서구·북구는 '부랑인 단속 보호 요령'에서 '폐질'(고칠 수 없는 병)이라 해서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처럼 공공기관에서조차 민주·인권과는 거리가 먼 장애인 차별 조례를 두고 있는 것은 정신질환을 앓는 장애인이 위험한 존재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탕으로 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문체가 먼 조례와 규정은 즉시 삭제하거나 개선되어야 한다.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의 인권이 제한되거나 침해받어서는 안 된다.

無 等 鼓

지난 2016년에 이어 똑같은 곳에서 올해 '신년 운세'를 봤다. 지난해에는 점집이 열리지 않아 한 해 건너 뛰었었다. 2016년엔 혼자 갔지만 올해는 아는 이와 동행했다. 그해 점괘대로 작은 행운이 찾아와 이번엔 좋은 기운을 나눠 갖고 싶어하였다.

2016년 내 운세를 봐 준 권윤성이었고, 올해는 '개'였다. 근사한 선글라스까지 챙겨 쓴 두 마리의 개가 차린 점집에서 부채 주머니에 1000원씩을 넣고 떨리는 마음으로 운세화(籤書)는 새해를 뽐냈다. 개들이 운세를 봐 주는 곳은 광주 신세계 백화점 1층 신세계 갤러리다. '재미 있는 마음으로' 운세를 봐 주는 개와 원숭이는 바로 손봉채 작가의 '작품'이다. 원하는 사람은 상자 속에서 운세가 적힌 종이 하나를 뽑으면 된다. 신세계 갤러리에서는 해마다 세화전이 열린다. 올해는 '福 받으시게'전(20일까지)이 관람객들을 만나고 있다. 갤러리엔 흥미로운 작품이 많다. 안전성 인 이익이 태아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경우에는 투여할 수 있다.

여성의 모체는 임신 중 격렬한 변화를 겪게 된다. 눈도 마찬가지다. 임신 중에는 치료가 있어 여러 제약이 많으므로 예방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따라서 임신부는 의회 후 손을 잘 씻고 눈거품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눈의 이상이 의심되면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한 안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다.

세화(歲書)는 새해를 송축하고 재앙을 막기 위해 그린 그림이다. 황금 개띠인 올해는 당연히 '개'가 주인공이다. 그 어느 해보다 따뜻한 작품들이 많이 전시됐다. 아마도 개가 사람과 가장 친숙하고 가까운 동물이기 때문인 듯하다. 무엇보다 동물만이 아닌, 사람과 '함께하는' 모습을 담은 작품들이 많다.

올해 내가 받은 운세를 요약하면 "냇물이 모여 강을 이루듯, 작은 것을 소중히 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복이 온단다. 여러분도 세화전에 한번 들러 보시라. '재미 삼아' 운세도 보고 행복 한 기운도 듬뿍 받아 가시길.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m.kr

<p>光 州 日 報</p>		<p>The Kwangju Ilbo</p>	
<p>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p>		<p>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우편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p>	
<p>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p>		<p>광고문의 062-227-9600</p>	
<p>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p> <p>편집부 220-0649</p> <p>정지부 220-0632</p> <p>사회부 220-0642</p> <p>사 회 2부 220-0652</p>	<p>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p> <p>문 화 부 220-0661 (FAX 222-0664)</p> <p>체 육 부 220-0697</p> <p>사 진 부 220-0693</p>	<p>220-0515 문화사업국 (FAX 222-8005)</p> <p>227-9600 업 무 국 (FAX 227-9500)</p> <p>220-0536 서 울 지 사 (FAX 02-773-9331)</p>	<p>220-0541 (FAX 222-0195)</p> <p>220-0551 (FAX 222-0195)</p> <p>02-773-9331 (FAX 02-773-9335)</p>
<p>※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p>			
<p>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p>			